

‘영광 불갑사 천왕문’ 국가지정유산 보물 지정



‘영광 불갑사 천왕문’이 지난 2일자로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영광 불갑사 천왕문’을 비롯해 주요 사찰의 금강문(金剛門)과 천왕문(天王門), 충남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등 9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금강문과 천왕문은 사찰에 들어설 때 만날 수 있는 산문(山門)으로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건축물이다. 이번에 지정된 금강문과 천왕문은 17~18세기에 걸쳐 건립 및 중창

된 것으로 ‘완주 송광사 금강문’, ‘보은 법주사 천왕문’,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구례 화엄사 천왕문’, ‘영광 불갑사 천왕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포항 보경사 천왕문’, ‘김천 직지사 천왕문’ 등이 해당한다. ‘영광 불갑사 천왕문’은 여러 차례 보수 및 이간에도 불구하고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 후기 건축양식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와 함께 지역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사문(寺門)으로 역사적, 예술적인 가치가 높다. /영광=서종민 기자

함평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함평군이 전남도 장기여행 체험 프로젝트 ‘2024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함평’ 참가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함평’은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함평 장기체류 관광객이 SNS 홍보 미션을 수행할 경우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의 주소지를 둔 관광객 중 함평 여행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는 7~30일 동안 자유여행을 하면서 여행 후기 작성, 체험프로그램 참가, 나만의 함평 숨은 명소 발굴하기 등의 여행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모든 여행과제를 완료하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 1일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급력이 큰 여행작가, 여행블로거, 여행유튜버, 유명예술인 등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함평=김홍희 기자

“따뜻한 봄,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와 함께”

19일 팡파르... 전시·공연 행사 다채 DM 버스킹 ‘봄의 향기’ 전시관 등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개최일(19일)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현장은 축제장을 찾은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이번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곡 효산리-춘양대신리에 걸친 596기의 고인돌 유적군 일대에서 펼쳐지며, 먹거리 부스와 피크닉 공간을 조성했고, 다채로운 전시·공연 행사가 펼쳐진다. 축제 기간 물멍 존에서는 ‘DM 버스킹’이 펼쳐진다. 4월 20일에는 ‘낭만에 대하여’로 유명한 최백호와 ‘아

침 이슬’의 양희은이 출연하여 7080 세대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며, 4월 21일에는 쏘(Sole)와 차세대 발라드 여신으로 불리는 박혜원(HYNN)이 출연,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행복을 전한다. 다음 주인 4월 27일에는 ‘춧불잔치’의 이재성이 출연할 예정이며, 최근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권인하도 그 특유의 ‘천둥 호랑이’ 창법으로 팬들을 맞는다. 또한, 향토 음식과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들어설 고인돌 장터에서는 ‘추억의 DJ박스’가 운영된다. 축제 기간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총 6일간은 전문 DJ가 진행하게 되며,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노래, 사연, 깜짝 인터뷰, 현장 게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봄꽃과 야생화, 다육식물로 꾸며진 ‘봄의 향기’ 전시관은 너비 8m, 길이 40m 규모의 하우스 3동으로 구성된다. 셋째 동은 초화류를 사용해 꽃강길, 개미산 등 화순의 명소를 다채롭게 표현했고 둘째 동은 소박한 야생화 전시존으로 꾸며졌다. 첫 번째 동은 다육식물 주제관으로 ‘2024 다육가드닝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축제 기간 물멍 존에서는 ‘DM 버스킹’이 펼쳐진다. 20일에는 가수 최백호와 양희은이 출연해 7080세대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21일 박혜원, 27일에는 이재성과 권인하 등이 출연해 관광객들을 만난다. 향토 음식과 농특산물 판매 부스가 들어설 고인돌 장터에는 ‘추억의 DJ박스’가 운영된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봄소풍 가기 좋은 4월,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장을 찾아 여유를 즐기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노랗게 물든 유채꽃과 푸른 하늘을 벗 삼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나주시, 면 지역 마을버스 노선 연장 개편 완료

다시·문평·세지·봉황면 권역 연장... 환승없이 나주·영산포까지 직행

나주시가 면(面) 지역 마을버스 직행 노선 연장 개편을 최종 완료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왕곡·공산·동강·반남면에 이어 이날부터 다시·문평·세지·봉황면 권역 마을버스가 환승 없이 노선을 연장해 나주, 영산포 터미널까지 직행한다. 노선 연장에 따라 기존 마을버스 번호(41-1-53번)가 전체 변경됐다. 세지면 버스 노선은 410번 ‘나주-영산포-세지(죽동)-동창터미널-세지(화동)’, 411번 ‘나주-영산포-세지(내정)-동창터미널-세지(교산)’, 412번 ‘나주-영산포-세지(내정)-동창터미널-세지(식산)’이다. 봉황면은 413번 ‘영산포-나주-

금천사거리-빛가람동(한전후문)-봉황-동창터미널’, 414번 ‘나주-영산포-봉황-다도’, 415번 ‘영산포-진부-영산포-부치-동창터미널-봉황(덕곡)’, 416번 ‘나주-금천-봉황-봉황(박실)-남평’ 순으로 운행한다. 다시, 문평면 권역은 500번 ‘나주-운전면서시험장-다시-문평-함평(나산)’, 501번 ‘나주-다시-소학-방골-월계-문평’, 502번 ‘나주-다시-다시(본촌)-문평’, 503번 ‘나주-성북동행정복지센터-다시(회진)-다시터미널-다시(화동)’, 504번 ‘나주-다시(신광)-다시터미널-다시(정림)’ 노선 순이다. 노선 및 운행시간표 등 자세한 사

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영산포 버스터미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주시는 광주-나주 간광역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160번은 기존 96회에서 108회, 999번은 20회에서 26회로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하고 있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대중교통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면 지역 마을버스 노선 연장 개편을 최종적으로 완료했다”며 “변경 노선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용객 불편 사항 해소는 물론 특히 출·퇴근, 504번 ‘나주-다시(신광)-다시터미널-다시(정림)’ 노선 순이다. 노선 및 운행시간표 등 자세한 사

담양, 어르신 눈높이 교육 문해교육사 양성 학습자 모집

전통정원·인문학교육 특구이자 평생학습도시 담양군이 함께 평생교육을 이끌어갈 ‘문해교육사 3급 양성 과정’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문해교육사’란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읽기·쓰기부터 사회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기초 생활 능력(디지털 문해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이며 대상 조건 및 선형조사지 평가를 통해 학습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행정과(061-380-3188)로 문의 또는 담양군 평생학습정보망 공지사항과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담양=강성국 기자

장흥, 임신 희망 부부 ‘검진비·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장흥군은 이달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 고위험 임신, 미숙아 출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임신·출산 관련 고위험 요인

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임력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검사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검사(혈액),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20~40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채취 시술비와 난자 동결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난소기능 저하(AMH 검사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0~40세 여성이며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은 보건소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전국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또는 시술한 뒤,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장흥=임민기 기자

장성,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참여 기회 확대한다

4기 ‘액션그룹’ 이달 23일까지 모집... 선정 시 2000~5000만 원 지원

장성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할 4기 ‘액션그룹’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홍보(촬영·디자인) △문화(문화·예술) △관광 △환경(환경·산림) 4개 분야로,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10명 이상이 결성한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산과 자생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공동체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장성군은 앞선 2019년 축령산을 활용한 ‘편백숲 어울림 치유여행 프로젝트’가 선정되며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축령산 숲매우터가 랜드마크 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국내 최초 ‘숲매우터 국제 인증(LEAF)’을 획득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사업에도 포함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마을여행사 ‘올로와장성’은 체류형 숲 여행 프로그램, 지역 수공예 제품을 파는 ‘봄봄 프리마켓’ 등 개성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뜰해진 관광지원을 되살리는 데도 힘썼다. 금곡영화마을과 홍길동테마파크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숲 가치 보전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이번 4기 ‘액션그룹’은 신규그룹은 물론 기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참여 그룹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시, 자부담 20% 포함 2000~5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광,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영광군은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의회의원, 부군수, 실과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영광군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영광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고취시키고 보편적 문화

회복기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 주요내용에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영광스러운 문화도시 영광”이라는 비전과 누구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 영광다운 문화발굴·활용, 자생력 있는 영광문화 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목표를 통해 82개 사업이 제시됐다. 영광 문화발전의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1단계로는 영광 문화생태계의 인적적 정착과 보급, 2단계로는 영광 문화생태계를 기반

으로 지역문화를 활용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광 문화의 혁신적 도약, 3단계로는 영광민의 문화적 가치 증진 및 질적 성장 등으로 이뤄졌다. 강종만 장흥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군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발굴해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고취시키고, 보편적인 문화 복지 및 매력 있는 문화관광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